

# 새사연 보고서

## 청년에게 협동조합은 아직 ‘봄’ 이 아니다.

서울시 연령대별 협동조합 설립 분석

2013.10.17 | 김병권\_새사연 부원장 | bkkim21kr@naver.com

1. 들어가며
2. 40대 후반~50대 전반이 주도하는 협동조합 설립
3. 청년세대 협동조합의 몇 가지 특징
4. 연령대별, 지역별 협동조합 설립 특성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 요 약 문

2013년 9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협동조합 설립 신고를 수리한 건수가 2,600건을 넘어가고 있는데, 지난 10개월 동안 매달 평균 260개의 협동조합 설립이 공식적으로 승인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2013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3000개 이상의 설립신고 수리가 될 것이 확실하다.

현재의 협동조합 봄은 베이비 붐 세대의 남성들이 주로 은퇴전략으로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협동조합 방식을 다수 선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들 세대는 이미 13~16년 전, 벤처 창업을 경험했던 세대들이었기 때문에 창업이 낯설지 않은 세대들이다. 2000년 전후 당시 벤처 창업의 50%이상은 30대가 주도했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자체 자금과 사업기반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사업자 협동조합 비중이 전체의 66%가 넘는 이유도 협동조합 설립 주체의 대분이 40~50대인 것과 관련이 있다고 봐야 한다.

협동조합이 청년세대들에게 아직은 사회진출의 새로운 선택지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적어도 청년들에게 협동조합이 아직은 ‘봄’ 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이는 50대와 비교하면 확연히 드러난다. 50대의 경우 기존 법인 기업 설립 비중은 25%에 불과했지만 협동조합 설립 비중은 무려 38%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강남/서초/송파로 알려진 강남 3구가 협동조합 창업을 주도하고 있다. 서울시 전체 협동조합 설립의 1/4(24.8%)가 강남 3구에서 설립되었다. 인구수를 감안하면 종로/중구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상위 그룹에 속하기는 마찬가지다. 사업의 편의성을 감안한 사무실 소재지 선택에 의한 고려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해도 역시 많은 수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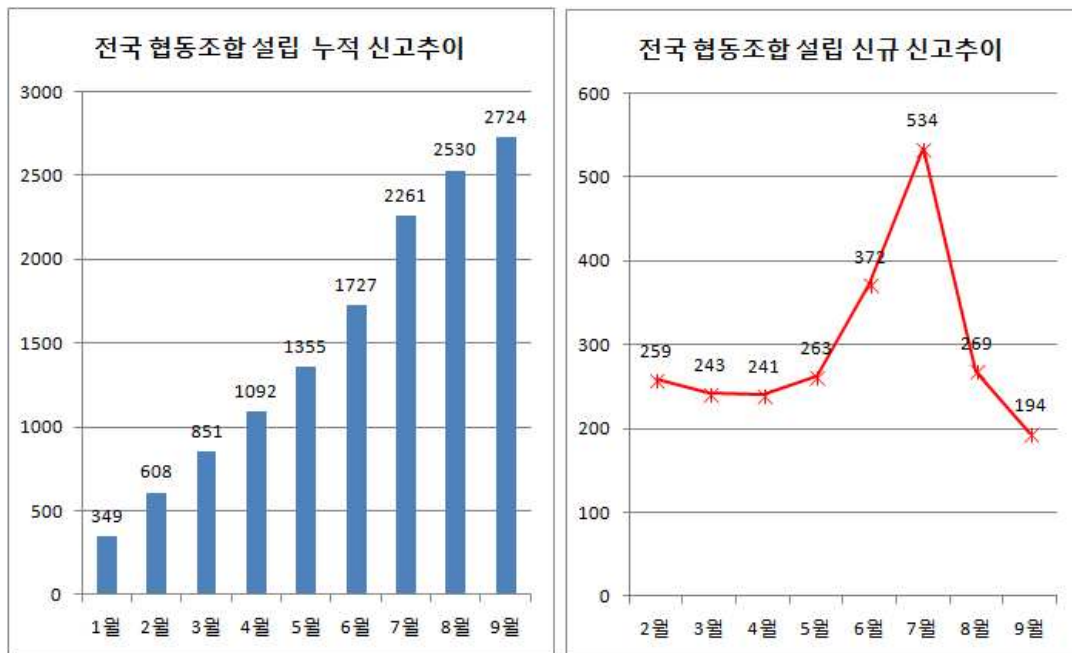
둘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룹은 대체로 구 도심권에 해당하는 종로/중구/영등포(19.5%)이다. 이들 그룹은 인구를 감안할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아지는데, 이는 오히려 이들 지역이 사무실 소재지의 편의성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개연성이 있다. 셋째로, 마포/서대문/은평구 지역이 협동조합 설립 분포(14.4%)가 높은 지역이다. 상대적으로 서민층 비중이 높은 이 지역의 경우 강남 3구와 여러모로 대조적일 수 있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조만간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1년이 다가온다. 이제부터는 설립신고 → 신고 수리 단계를 넘어서 구체적 사업개시 → 사업 운영 → 수익 발생 등 본격적인 사업이 전개될 것이다. 실제 사업을 어떤 정도로 개시하고 사업을 운영해 나가고 있는지 분석이 앞으로 필요한 과제다.

## 1. 들어가며

협동조합 설립 봄이라고 한다. 혹자는 2000년의 벤처기업 설립 봄에 비교하기도 한다. 그럴 만도 하다. 2013년 9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협동조합 설립 신고를 수리한 건수가 2600건을 넘어가므로 지난 10개월 동안 매달 평균 260개의 협동조합 설립이 공식적으로 승인되었다는 것이 아닌가? 현재 추세대로라면 2013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3000개 이상의 설립신고 수리가 될 것이 확실하다. (다만, 아직 추세 변화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2013년 8월 이후에는 협동조합 설립 탄력이 상당히 둔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림 1 : 전국적인 협동조합 설립 신고 추이



물론 일반적인 회사 법인이 매년 약 8만개의 신규 설립 신고되는 것을 감안하면, 그에 비해 5%도 되지 않는 협동조합 설립 봄이 절대적으로도 엄청난 것이라고 과장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전체 협동조합의 97%를 차지하는 일반협동조합은 문자 그대로 기업법인의 한 형태이고 그런 점에서 주식회사 법인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2년 12월 협동조합 기본법 발효 이후 1년이 다가오는 지금, 폭발적인 협동조합 설립 봄 자체에만 열광하거나, 장래에 많은 협동조합들의 부실화 가능성을 미리 예단하며 걱정하는 것 모두 시의적절한 태도는 아니다. 시시각각 새로 만들어지고 사업을 개시하며 운영되는 협동조합들의 내부를 살펴보고, 더 나은 개선과 성공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계속 확인해 나가는 것이 더 긴급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연령대별 협동조합 설립 추이와 그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세대별(연령대별) 일자리 양상이 다르고 이에 대한 정책도 차이가 있다. 특히 청년세대의 창업 동기와 방식은 은퇴세대의 그것과 상당히 다를 수 있다. 그렇다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선택으로서의 협동조합 창업 역시 청년, 중년, 장년 세대들이 각기 다른 특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정책적 대응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또한 연령대별 협동조합 설립과 함께, 지역별(구 단위) 협동조합 설립 추이와 특성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대체로 주식회사 법인에 비교하여 협동조합은 지역 공동체와 결합되어 설립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별 협동조합 설립 추이는 단순히 ‘사업 소재지’ 파악의 범주를 넘어서는 중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연령대별, 지역별(시군구 단위) 협동조합 설립 통계가 원활히 공개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여기서는 서울시에서 박원석 의원실에 공개한 연령대별 협동조합 설립 신고 내역을 기초로 분석을 시도했다. 자료는 2012년 12월에서 2013년 8월까지 서울시에 접수된 일반협동조합 713건 가운데 데이터가 완결적으로 정리된 707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다.<sup>1)</sup> 또한 분석대상으로 한 연령대는 출자자(조합원)들의 연령대가 아니라 대표자의 연령과 성별을 기준으로 삼았다.

## 2. 40대 후반~50대 전반이 주도하는 협동조합 설립

연령대별 협동조합 설립추이에서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은 40대 후반에서 50대 전반의 연령대(은퇴 시작 세대)에서 협동조합 설립 시도가 가장 많았다는 점이다. 이들 연령대가 대표자로 있는 협동조합은 전체의 42.3%에 이를 정도다. 좀 더 큰 시야에서 보면 현재 우리의 협동조합 설립은 50대가 주도하고 40대가 가세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40~50대 전체의 협동조합 설립 비중은 무려 68%에 달한다.

또한 성별로 보면 여성의 비율은 20%, 남성이 80%를 차지한다. 이러한 추이를 잠정적으로 종합해 볼 때, 현재의 협동조합 붐은 베이비 붐 세대의 남성들이 주로 은퇴 전략으로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협동조합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들 세대는 이미 13~16년 전, 벤처 창업을 경험했던 세대들이었기 때문에 창업이 낯설지 않은 세대들이다. 2000년 전후 당시 벤처 창업의 50%이상은 30대가 주도했기 때문이고, 이들이 현재 40대 중반 이후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자체 자금과 사업기반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사업자 협동조합 비중이 전체의 66%가 넘는 이유도 협동조합 설립 주체의 대분이 40~50대인 것과 관련이 있다고 봐야 한다.

그림 2: 연령별 협동조합 신청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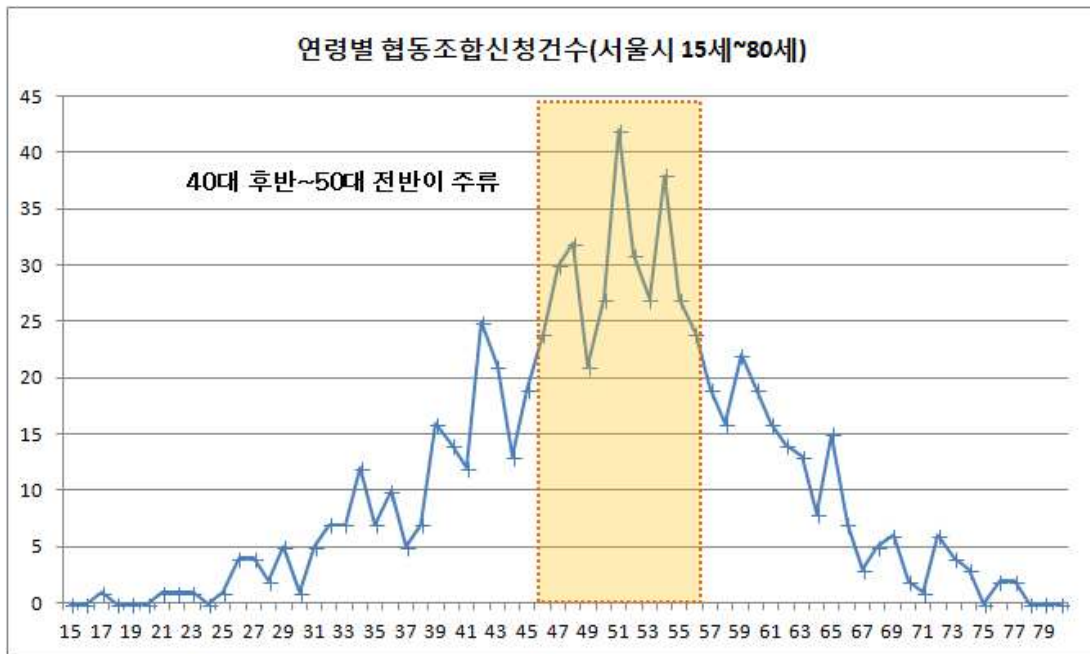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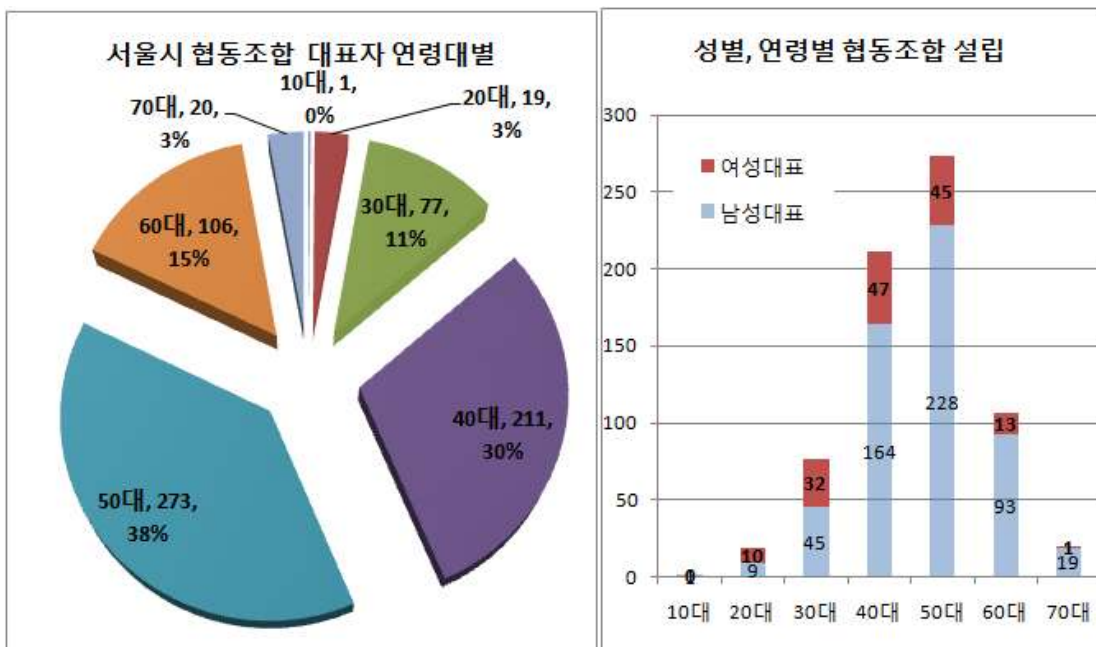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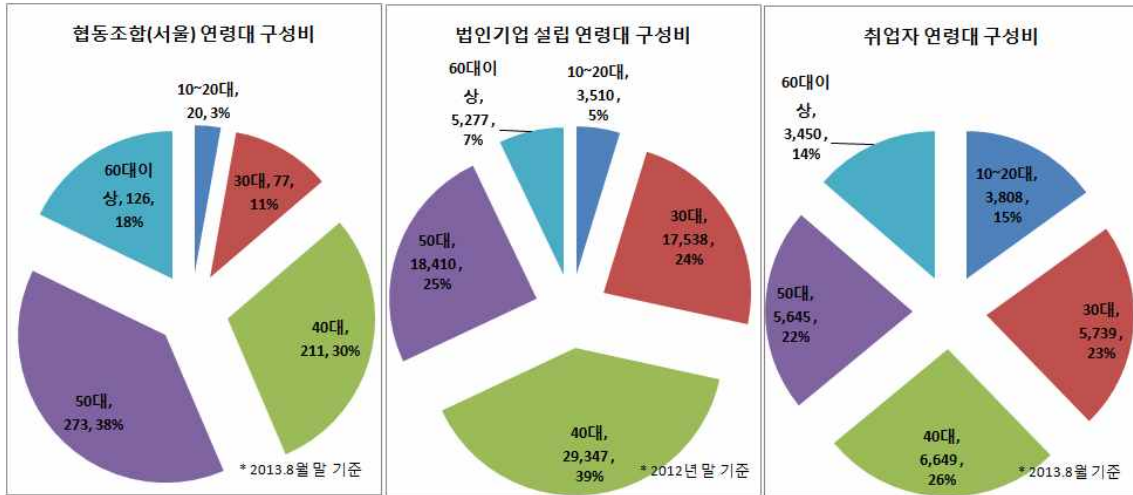
그림 3: 연령대별 성별 협동조합 신청추이



반면 40대 미만의 청년세대 협동조합은 그 비율이 매우 낮는데 전체 협동조합 창업 비율의 15%에도 미치지 않는다.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가운데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3%이고 10~20대의 경우는 15%로서 청년세대가 38%다. 또한 40대 미만의 청년들이 일반 법인기업을 창업하는 비중은 29%로서 취업자 비중보다는 적지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협동조합 창업 비중은 일반 법인 기업 창업 비율의 거의 절반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낮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한 것이다.

그림 4: 협동조합설립, 법인기업 설립, 취업자 구성비



다소 극단적으로 말하면, 협동조합이 청년세대들에게 아직은 사회진출의 새로운 선택지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적어도 청년들에게 협동조합이 아직은 ‘봄’ 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이는 50대와 비교하면 확연히 드러난다. 50대의 경우 기존 법인 기업 설립 비중은 25%에 불과했지만 협동조합 설립 비중은 무려 38%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청년들이 전국에서 한 해 평균 약 2만 개 정도의 신설법인 설립에 참여하는데 협동조합은 겨우 300여개 정도를 설립할 정도로 협동조합 설립에 소극적이다. 반면에 40대 후반 이후 세대들이 주로 은퇴 후 생계수단으로서, 또는 기존 자영업의 활로 모색 방도로서 협동조합 설립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는 협동조합 설립 붐이 주로 자구적인 성격이 강하고 혁신적인 성격이 지나치게 약하다는 것을 암시해주기도 한다.

아무리 협동조합이 역사적으로 약자들의 자구적 선택이라고 해도 시장경제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일정하게 혁신적인 의지와 능력이 포함되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자면 특히 청년들의 협동조합 참여를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많이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청년들에게 협동조합이 의미 있는 하나의 선택지로서 인식되고 있는지, 협동조합에 대한 정당한 기회의 창이 열려 있는지, 충분한 정보와 접근공간이 주어졌는지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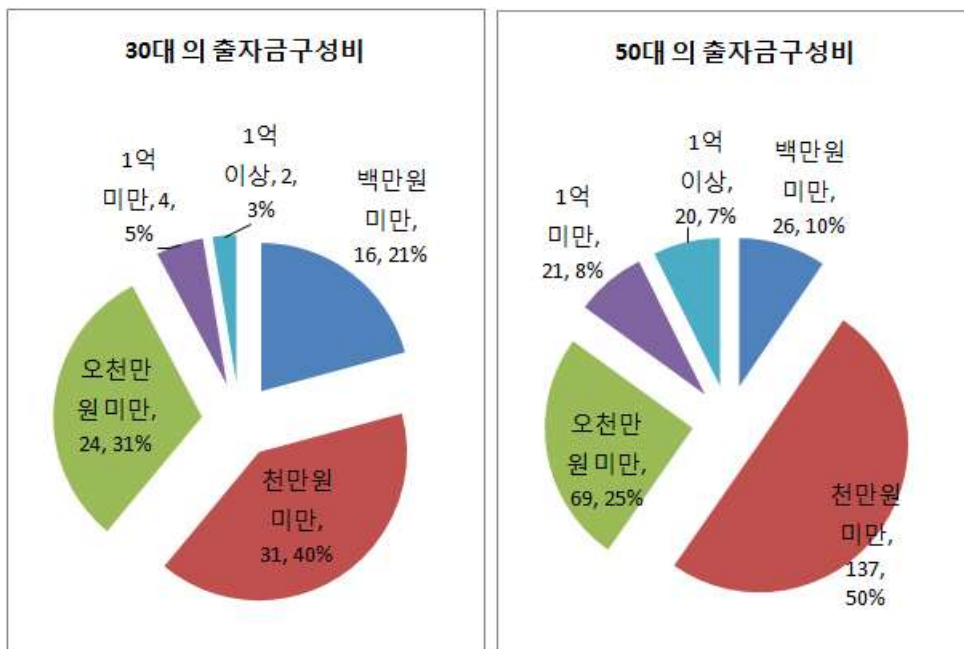
### 3. 청년세대 협동조합의 몇 가지 특징

그렇다면 이렇게 왜소한 청년세대 협동조합들 가운데에서도 다른 세대와 다른 특징들은 있는가? 연령대를 기준으로 한 협동조합 설립에서 직관적으로 가장 차별적 특징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은 바로 출자금 규모일 것이다.

표 1 출자금 규모별, 연령대별 구성분포(서울시, 2013.8월 말 기준)

	백만 원 미만	천만 원 미만	오천만원 미만	1억 미만	1억 이상
10대	1	0	0	0	0
20대	7	2	9	1	0
30대	16	31	24	4	2
40대	29	106	56	6	14
50대	26	137	69	21	20
60대	18	43	33	8	4
70대	1	9	4	3	3
합계	98	328	195	43	43
비율	13.9	46.4	27.6	6.1	6.1

그림 5: 30대와 50대의 출자금 별 협동조합 설립 비중(서울시)



전체 연령대를 통틀어 출자금 비중이 1천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가 전체의 60%를 넘을 정도로 압도적이고 5천만 원 이상이 겨우 12%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초기 창업 자금이 매우 영세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sup>2)</sup> 그런데 특히 30대들의 경우, 백만 원 미만이 무려 1/5(21%)나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적은 비중의 청년 협동조합 창업에서 실제 내용마저 어둡게 생각할 수 있는 대목임이 틀림없다. 한마디로 출자금 규모는 연령대와 무관하게 전반적으로 열악하고 청년 세대에게서 좀 더 그 측면이 두드러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2 협동조합 유형별, 연령별 신청 수 및 비율(서울시 2013.8.31)

	다중이해관계자		사업자		소비자		직원	
10대	0	0.0	0	0.0	1	1.8	0	0.0
20대	7	3.2	8	2.3	1	1.8	3	3.8
30대	20	9.1	41	11.7	5	8.9	11	14.1
40대	62	28.2	108	30.8	13	23.2	28	35.9
50대	86	39.1	141	40.2	24	42.9	20	25.6
60대	34	15.5	48	13.7	12	21.4	12	15.4
70대	11	5.0	5	1.4	0	0.0	4	5.1
합계	220	100.0	351	100.0	56	100.0	78	100.0

다음으로 연령대별, 유형별 협동조합 설립에서 눈에 띄는 차별성이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자. 연령대 별로 협동조합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연령대에 관계 없이 사업자(생산자) 협동조합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협동조합 설립 붐이 상당한 정도로 자영업자들이 협동을 통한 생존의 강구수단으로 모색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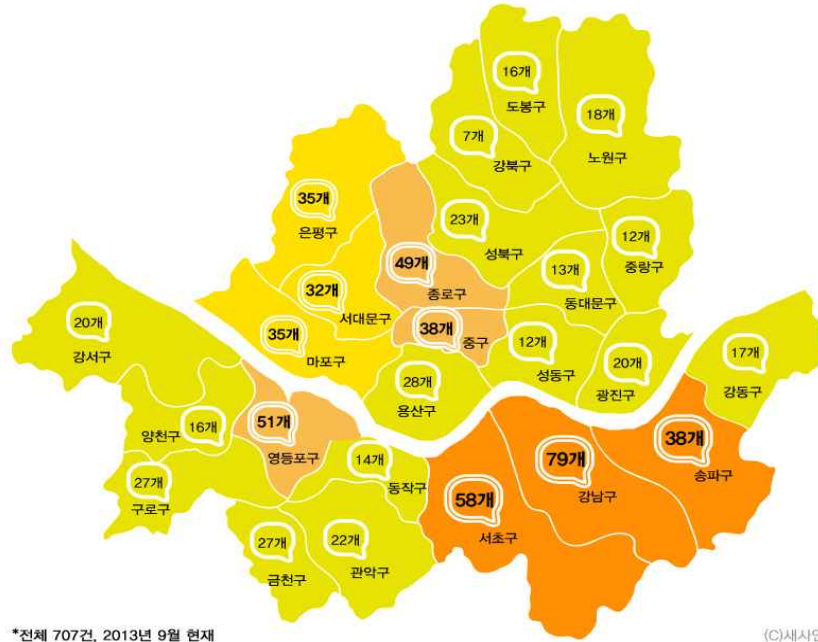
둘째로, 소비자 협동조합 보다 많은 것이 직원(노동자) 협동조합이라는 점도 눈에 띄는데, 이는 특히 30대와 40대에서 좀 더 두드러진다. 한편으로는 소비자 협동조합의 경우 이미 생활협동조합이 상당히 기반을 잡고 있는 현실을 반영할 가능성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30대와 40대의 경우 고용의 탈출구로서 협동조합을 고려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한다. 셋째로,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여기에 어떤 유형이 복합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상당한 정도 직원(노동자) 협동조합이 포함되어 있을 것을 감안한다면 역시 두 번째 지적한 고용 탈출구로서 협동조합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는 개연성에 힘을 실어준다.



#### 4. 연령대별, 지역별 협동조합 설립 특성

다음으로 연령대와 지역이라는 프리즘을 함께 보면서 협동조합 설립신고 내역을 분석해보도록 하자. 우선 전체 연령대에 걸쳐서 서울시의 25개 각 구별로 협동조합 설립 분포를 살펴보면 약 세 개 지역에서 두드러진 특징이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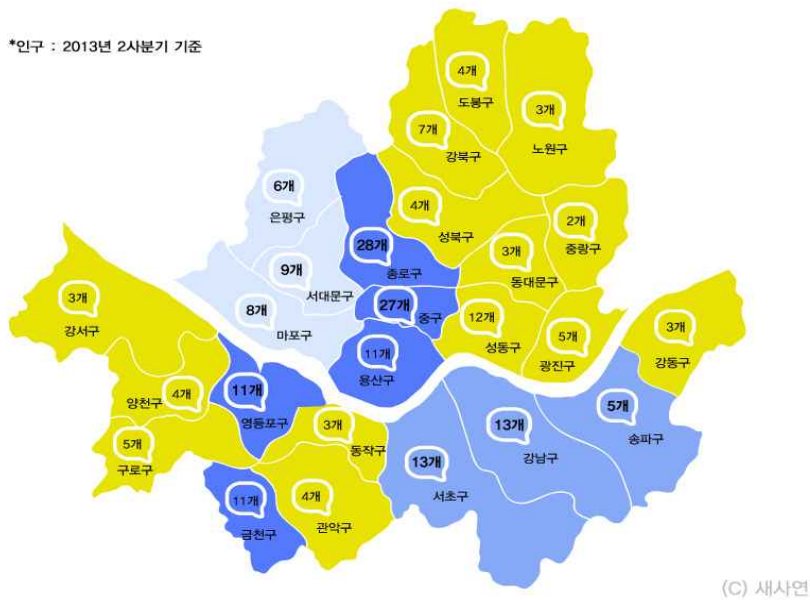
그림 6 서울 각 구별 협동조합 설립 신청건수



\*전체 707건, 2013년 9월 현재

(C)세사연

그림 7 인구 10만 명당 각 자치구별 협동조합 신청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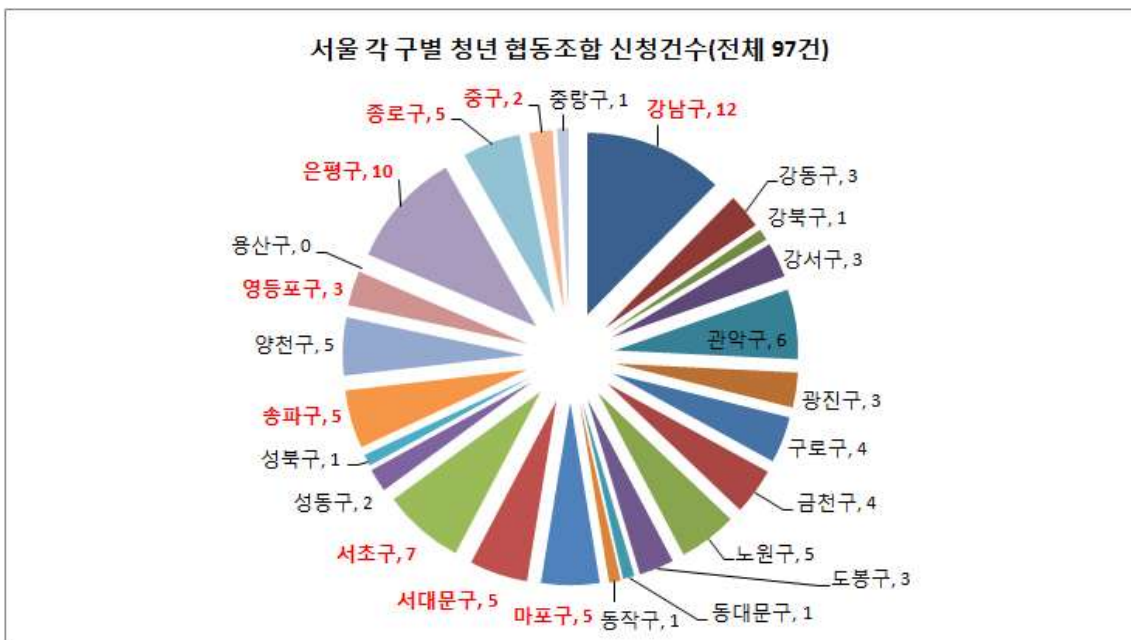
\*인구 : 2013년 2사분기 기준

(C) 세사연

첫째는, 강남/서초/송파로 알려진 강남 3구가 협동조합 창업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 전체 협동조합 설립의 1/4(24.8%)가 강남 3구에서 설립되었다. 인구수를 감안하면 종로/중구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상위 그룹에 속하기는 마찬가지다. 사업의 편의성을 감안한 사무실 소재지 선택에 의한 고려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해도 역시 많은 수자다. 배경 분석을 좀 더 해봐야 할 대목이다.

둘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룹은 대체로 구 도심권에 해당하는 종로/중구/영등포(19.5%)이다. 이들 그룹은 인구를 감안할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아지는데, 오히려 이들 지역이 사무실 소재지의 편의성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개연성이 있다. 셋째로, 마포/서대문/은평구 지역이 협동조합 설립 분포(14.4%)가 높은 지역이다. 상대적으로 서민층 비중이 높은 이 지역의 경우 강남 3구와 여러모로 대조적일 수 있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그림 8 :서울시 청년들의 협동조합 신고 구별 분포도



서울의 각 구별 협동조합 분포는 연령대를 대입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마포/서대문/은평구에서 청년들의 협동조합 참여가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반면 강남 3구에서는 50대 이상의 연령대들이 협동조합 설립 참여에 좀 더 적극적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협동조합 유형 분포에도 대체로 투영된다. 즉, 연령대가 높은 강남 3구에서 대체로 사업자 협동조합 비중이 다소 높고, 반대로 마포/서대문/은평구 지역에서는 직원 협동조합이 다소 많다.

■ 청년에게 협동조합은 아직 '봄'이 아니다

출자금 규모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발생한다. 강남 3구의 경우 1천만 원 ~ 1억 사이의 비중이 42%를 차지하는데 비해, 마포/서대문/은평구의 경우에는 25%에 불과했다. 일의적으로 단순 비교하기는 아직 어렵지만 마포/서대문/은평구가 좀 더 영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림 9 :서울 주요 두 지역의 협동조합 대표자 연령대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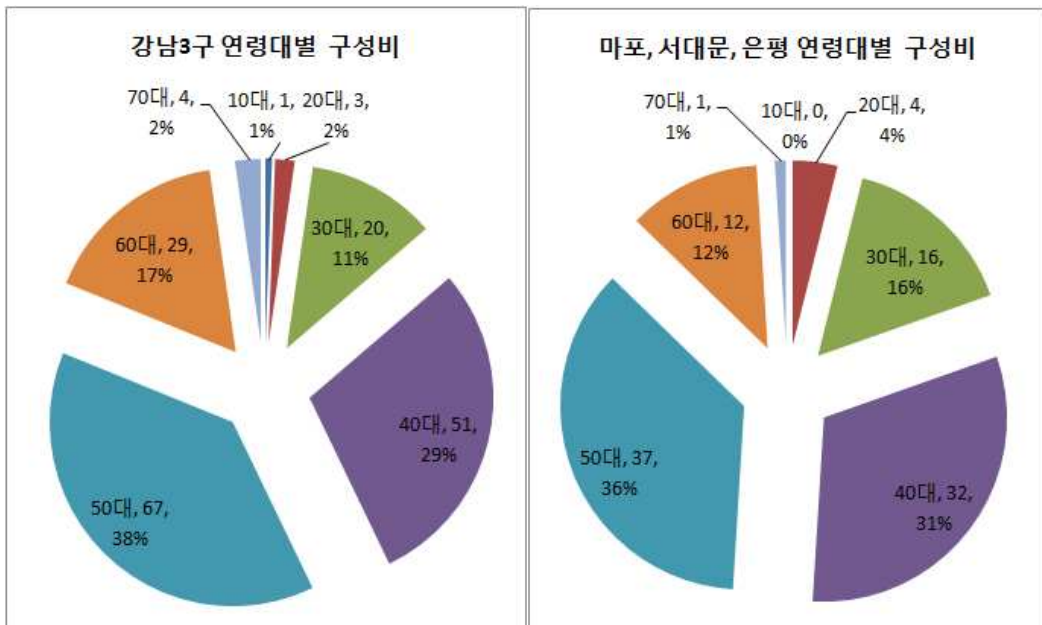


그림 10: 서울 주요 두 지역의 협동조합 유형별 구성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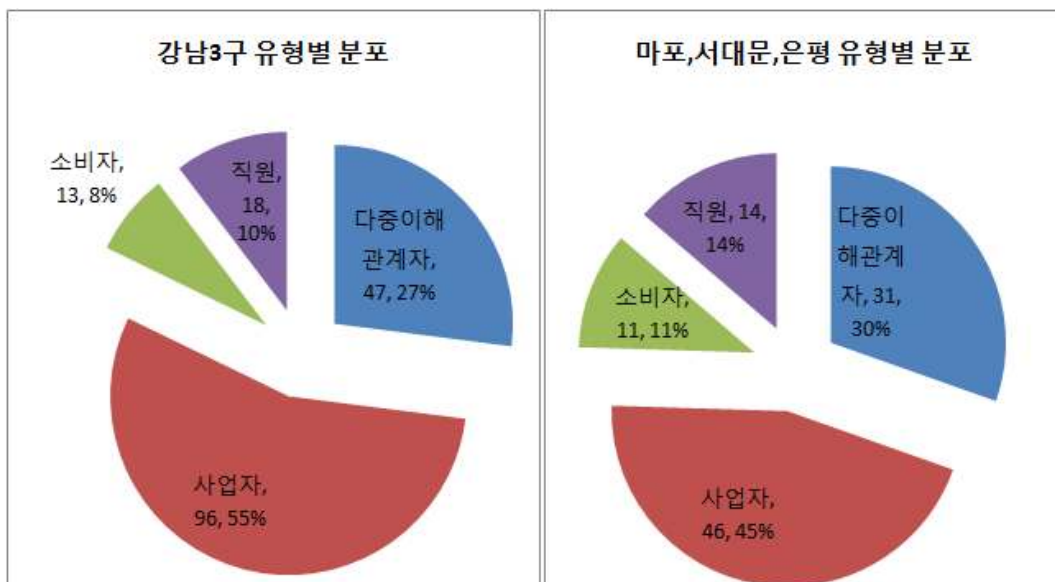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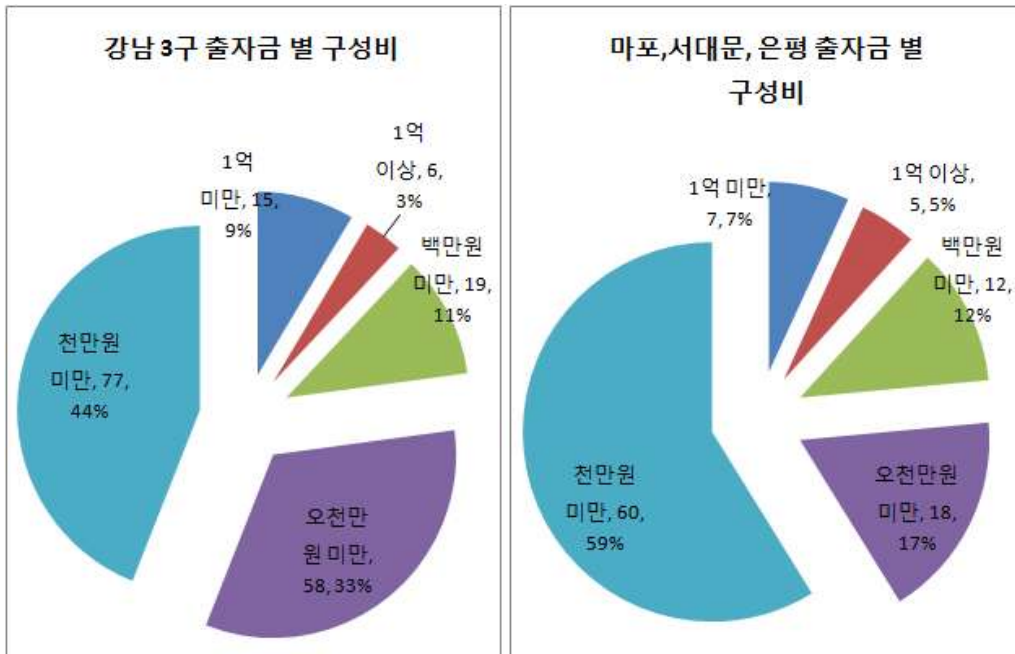


그림 11 :서울시 주요 두 지역의 출자금별 구성비 비교




서울지역의 구별, 연령대별 협동조합 설립 분포에 대해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다면, 강남 3구는 중, 장년 연령대에서 좀 더 안정적인 자금을 기반으로 사업자 협동조합에 주력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마포/서대문/은평구의 경우에는 큰 흐름에서는 다르지 않다고 해도, 세부적으로 보면 조금 더 젊은 대신 영세한 직원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특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물론 아직은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 하지만 워낙 차별성이 작지 않은 두 지역에서 앞으로 어떻게 협동조합이 변화 발전해 나갈지 추이를 분석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다. 협동조합이 그 특성상 지역 사회, 지역 공동체와의 연계성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 공동체의 특성이 협동조합의 변화 발전에 당연히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서울시에 국한하여 연령대별, 구 단위별 협동조합의 분포와 특색을 간략히 분석해보았다. 전체 협동조합 신고대상을 분석했다고 하지만 전체 대상 자체가 700여건에 불과할 정도로 아직은 많지 않다. 추가로 전국단위의 분석을 해보아야 할 것이다.

또 하나, 지금부터 협동조합 분석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는, 설립 신고가 수리된 이후, 실제 사업을 어떤 정도로 개시하고 사업을 운영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다. 정작 중요한 대목은 사실 여기서 부터다. 그러자면 일차적으로 각 협동조합이 실제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현황과, 이후 수입발생 내

역을 정밀하게 모니터링 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협동조합 관련 자료가 수집되는 대로 이를 정리하여 공개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조만간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1년이 다가온다. 이제부터는 설립신고 → 신고 수리 단계를 넘어서 구체적 사업개시 → 사업 운영 → 수익 발생 등 본격적인 사업이 전개 될 것이다. 조금 더 있으면 사업 포기나 폐업도 신규 설립 수만큼이나 많아질 것이다. 협동조합 밖에서 협동조합이 필요하다는 말을 반복할 때가 지났다는 것을 말해준다. 

*\* 이 자료 분석 보고서는 <서울시 청년일자리 허브>의 용역 프로젝트 일환으로 작성된 것임을 밝혀둡니다.*

## 2013년 새사연 발간 보고서

2013년 10월 17일 현재

아젠다	발간일	제목	작성자
고용, 소득	1/3	청년일자리 현황과 과제	김수현
저출산	1/28	박근혜표 무상보육의 한계와 과제	최정은
연금개혁	2/5	안전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논의	이은경
가계 부채	2/28	한국경제 최대 현안, 양극화와 가계부채	김병권
보장성 강화	3/27	4대 중증질환 보장, 의료비 절감효과 있을까?	이은경
경제민주화	5/22	경제 민주화 전략 다시 점검한다	김병권
청년고용	8/7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비중 증가의 문제점과 원인	김수현
사회적경제와 복지	10/10	사회적경제는 복지국가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이은경
사회적경제	10/17	청년에게 협동조합은 아직 ‘봄’ 이 아니다	김병권

- 1)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하였다. 왜냐하면 협동조합을 일반 기업법인과 비교분석할 필요도 있는데, 여기에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 2) 주식회사의 자본금 납입과 달리, 출자금의 경우 매월 분납하는 사례가 있음을 감안해도 영세하다는 사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